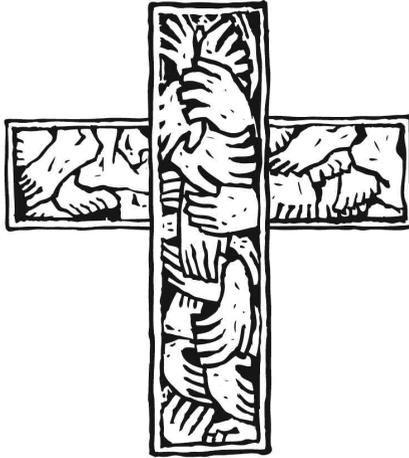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제8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동행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겨울이 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 요즘입니다. 주님,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조바심을 내며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전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가야 할 길을 기꺼운 마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유화하고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뿌리를 배반하고 열매만을 탐하는 이들을 벌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사회가 바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시124:7,8 인도자
 ▲ 교 독 문 59. 시편 136편 다 함께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장영숙 전도사
 2부응 답 송 찬양대
 2부찬 양 3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 성경봉독 사 29:9-14 I. 인도자
 II. 김문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나 기억합니다 마중물 찬양대
 II. 하나님의 음성을 청파 찬양대

말씀	당자의 심회로 바라보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모니동교회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깊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주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마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 집회 / 설교 : 김재홍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김재홍 목사

■ 삶과 이야기 ■

왜 긴팔 입어도 추우나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추워져서 불 때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밤에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잔다. 오늘 아침엔 글썽 집 안에서도 입김이 나오지 뭐가. 모기에 시달리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서 날이 추워지기만을 바랐는데 막상 덜컥 추워지니 짧은 가을이 안타깝기만 하다. 아이들도 아침이면 춥다며 얼마나 호들갑을 떠는지. 내가 아직도 옷 정리를 못한 터라 서랍엔 긴팔 옷보다 반팔 옷이 많아서 아침마다 아이들이 불만을 터뜨리고는 한다.

"엄마, 옷 정리한다고 하고 아직도 안 했지? 긴바지가 얇은 거밖에 없잖아."

"맞아, 나도 너무 추운 거밖에 없어."

"그래 미안해. 이제 정말 여름옷을 정리하고 겨울옷을 꺼내야겠다. 그러고 보니 반팔 노래도 바꿔 불러야겠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꺼내자 아이들은 잘도 알아듣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왜 긴팔 입어도 추우나 왜 긴팔 입어도 추우나

옛날에는 안 추웠는데 왜 긴팔 입어도 추우나

이 노래가 원래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에 만들어진 노래다. 지난여름의 초입, 갑자기 날이 더워지자 다람이가 사랑방 그늘에 앉아 끝도 없이 노래를 불러 짓혔더랬다.

왜 반팔 입어도 더우나, 왜 반팔 입어도 더우나, 옛날에는 안 더웠는데 왜 반팔 입어도 더우나... (무한 반복. 한낮의 더위가 한풀 꺾일 때까지.)

"다람아, 너 지금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있구나!"

"어, 근데 이 노래 진짜 신기하다. 노래를 부르면 안 더워지거든. 엄마도 더울 때 이 노래 불러 봐."

다람이의 첫 노래는 그렇게 해서 완성되었다. (다람이는 평소에도 워낙 자작곡을 많이 만들어 부르지만 금세 흠어져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노래가 되곤 한다. 새장 속에 갇혀 있기 싫어하는 새 같다고나 할까? 잡아서 가두려야 가둘 수조차 없는. 한데 이 노래는 너무 귀여워서 그냥 날려 버리기 아까웠

다. 그래서 내가 작정을 하고 외워서 곡조도 약간 다듬고 끝도 없는 반복도 자르고. 그런 식으로 길들여서 곁에 두게 되었다.) 다람이한테 내가 만든 노래가 엄마는 정말 좋다며 마구 칭찬을 날리고 추켜세워 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빈말이 아니고 나는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한다.

왜냐, 노래가 짧고 단순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다. 자연의 기운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는 노래라고나 할까? 자각을 통해서만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변화할 수 있는 법이니까. 게다가 '왜?'로 시작되는 물음이 따라붙어서 변화를 알아차림과 동시에 탐구심까지 작동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단순히 '날이 더워졌구나, 덥다 더워.' 짜증을 내는 것과 '왜 더울까?'를 질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다.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깊게 세상의 비밀과 연결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꿈보다 해몽이다 싶기도 하지만 갖다 붙이려고 하면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이 노래의 장점은 노랫말에 일상을 담아 맞춤형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앞에서 노래했듯이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엔 '왜 긴팔 입어도 추우나'로 바꿔 부른다. 아이가 추운데도 반팔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왜 반팔 입으면 안 되나'로 고쳐서 부르며 이유를 설명한다. 심지어 아이들은 참 다양한 상황에서 이 노래를 바꾸어 불렀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왜 사탕 먹으면 이빨 아프나 (다람)

왜 청소 안 하면 혼나나 (다울)

왜 물장난 하면 추우나 (다람)

왜 오줌 싸면 떨리나 (다울)

겨울 문턱을 넘어서면서도 나와 아이들은 이 노래를 자주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계절의 변화에 서서히 적응해 가고 또 그러면서 조금씩 더 자라나겠지. 노래와 함께라면, 그 어떤 변화 앞에서도 두렵지 않으리라.

- 정청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중에서

달이 걸어오는 밤

허수경

저 달이 걸어오는 밤이 있다
달은 아스피린 같다
꿀꺽 삼키면 속이 다 환해질 것 같다

내 속이 전구알이 달린
크리스마스 무렵의 전나무같이 환해지고
그 전나무 밑에는
암소 한 마리

나는 암소를 이끌고 해변으로 간다
그 해변에 전구를 단 전나무처럼 앉아
다시 달을 바라보면

오 오, 달은 내 속에 든 통증을 다 삼키고
저 혼자 붙어져 있는데, 통증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
다시 그 달을 꿀꺽 삼키면
암소는 달과 함께 내 속으로 들어간다

온 세상을 다 먹일 젖을 생산할 것처럼
통증이 오고 통증은 빛 같다 그 빛은 아스피린 가루 같다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광정자 구명자 구재원 김광일 이부용 김금순 김남종 오복순 김병대 김선지
 김성순 김성진 김영미 김영옥 김예준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김은옥
 김익한 김정기 김정민 이해령 김정훈 이진영a 김진혁 신다현 김태정 김필순
 김혜영a 김홍수 남윤경 문병옥 문복순 박기영 박미연 박숙미 박연주 박인혁
 고숙이 박창운 허정운 박해숙 백묘현 백성래 서동우 서해나 손숙경 안미숙
 안종일 정현주 안지민 오미숙 오자영 우경환 원용일 최현선 유경주 윤영미
 윤정득 은종인 이광섭 김수연 이수자 이용현 이우상 이계월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주경 안상숙 이한림 김명희a 임고은 임선자 임주빈 최현옥 임찬양
 전성호 정두리 정영례 정종삼 조두희 오연훈 조병무 송양진 조순덕 주은경
 최 숙 최승주 조호진 최옥자 최진성 최영은 최 현 한상경 한완식 임정자
 허호범 박성실 현 진 홍춘숙

감사헌금

권채영 김 극 김나름 김반야 김소민 김창조 김인하 김창숙 김은종 노미영
 박범희 변종복 이광재 이상도 이선호 이유일 김미희 이은빈 이은서 이은진
 이자애 이종후 이지하 임종수 임채진 이영희 장영숙 정구봉 정다운 정소하
 정학성 김현숙 채일석 천영애 천윤기 한훈식 허정호

생일감사헌금

이치림 정재울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향자 문복순 안현숙 은종인 황현성 이오복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